

영한 통역 정확도 평가를 위한 아이디어 단위 연구

원 중 화
(중앙대)

1. 서론

통상적으로 전문통역사의 통역에 대한 평가는 '원문과의 의미(sense) 일치도', '논리의 흐름', '용어 사용의 정확도', '문법의 정확도', '목소리의 질' 등 목표텍스트의 질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문지식의 이해도', '자료 준비 성실성' 등 통역사의 직업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uhler, 1986; Chiaro & Nocella, 2004; Kurz, 1993; Moser, 1996; Pochhacker, 2001). 이에 반해 통역 학생들의 통역 평가 기준은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점수 또는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Riccardi, 2002). 특히 교육 과정 중 실시하는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 또는 학기말에 실시하는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 등의 경우 상세한 평가 항목 별로 성과 정도나 개선방안을 판단하고 모색하여 향후 학습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Brown, 2004; Federich, 2010). 이러한 상세 항목 중에서도 통역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대부

분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원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의미하는 정확도 (accuracy)이다(Riccardi, 2001; Schjoldager, 1996). 아직 통역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원천텍스트에 대한 충실성과 목표 텍스트의 구성에 끌고루 정보처리자원을 안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원천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정보처리자원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안배하는 습관 등을 몸에 익히지 못하면, 예를 들어, 내용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배경지식에 의거하여 내용을 추론하는 하향식 정보처리에 너무 쉽게 의존한다든지, 들리는 한, 두개의 어휘만을 가지고 내용을 추론해 부정확한 목표텍스트를 구성하는 등의 잘못된 통역 습관이 몸에 밸 수 있기 때문이다(원종화, 2013).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정확도’ 또는 ‘원문에 대한 충실도’를 중요한 평가 지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확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통역에 있어서의 정확도는 표면적인 형태가 아닌 의미를 중심으로 한 ‘센스’ 혹은 ‘메시지’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예: Buhler, 1986; Gile, 1995; Kurz, 2001; Lee, 2008), 이러한 센스 또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표면적 형태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통역의 정확도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현재 통역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의 사전 준비 단계로 현재 국내 통번역 대학원에서 통역 강의를 하고 있는 다섯 명의 통역 강사들을 대상으로 정확도 평가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문의했으며,¹⁾ 이에 대해 다양한 응답이 나왔으나, 평가자간 신뢰도

1) 본 논문의 사전준비로서 통역강의경력 4년부터 9년까지(평균 6.4년)의 강사 5명에게 정확도 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에 관해 문의했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1. 구, 절, 때로는 핵심단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본다. 정확히 평가단위가 정해져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 문장 간 접속사를 통한 내용 연결, 주어/동사 파악 여부, 각 문장에서의 디테일 생략 여부, 문장의 의미 정확도 등을 모두 본다. 3. 각 단락별로 핵심 문장을 정해놓고 핵심문장 중심으로 본다. 각 문장에서는 주절 중심으로 보며, 그밖에 절을 중심으로 한 논리의 흐름, 문장 간 연결 관계 등을 본다. 4. 주로 문장 차원에서 평가가 잘 이루어졌나 본다. 5. 틀린 부분을 색연필로 칠한 다

(interrater reliability)를 용이하게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역대학원 학생들의 통역 정확도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미 단위(본 논문에서는 ‘아이디어 단위’ 개념으로 정의함) 개념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통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정확하게 원천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평가자 간의 신뢰도 확보가 용이하며, 교육자들에게는 교육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 사용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조사와 후속 수정 보완 단계를 거치면서 일차적으로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규정한 후에, 통역 교육자 3인에게 통역대학원 학생들의 통역 정확도 평가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1차 평가 후 위에서 규정한 아이디어 단위를 교육하고, 교육 후 다시 동일한 통역 파일의 정확도를 재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평가 후,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정확도 평가 결과를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단위의 유의미성을 검증했다.

2. 정보 처리에 있어서 의미 단위에 대한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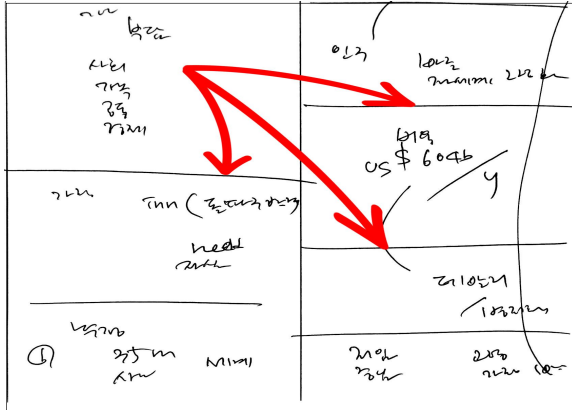
많은 통역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통역 수행은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정혜연&고효정, 2012; Albi-Mikasa, 2008; Fabbro, Gran & Gran, 1991; Gile, 1997b, Pochhacker & Shlistinger, 2002에서 재인용; Le Ny, 1978; Lederer, 1994; Moser-Mercer, 1997, Pochhacker & Shlistinger, 2002에서 재인용; Seleskovitch, 1978 등). 이는 다시 말해서 통역 수행의 정확도를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미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평가자들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텍스트를 분절하고, 이에 따라 계량적으

음, 전체 원고에 대한 면적 비율로 정확도를 산정한다.

로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단위의 심리적 실재(psychological reality)를 가장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역사들이 노트테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분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횡선 표시이다.

<그림1> 노트테이킹에서 횡선의 예



노트테이킹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머리 속에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처리되는 메시지 분절 단위를 횡선으로 표시함으로써 각 의미 덩어리의 내용을 용이하게 기억 저장고에 저장하고, 원천텍스트에서의 논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김남희, 2009; 이상빈, 2012; 이유아, 2006; 최정화, 2002). 이러한 의미 덩어리는 임의적으로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동일한 정보처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동일한 단위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원고를 가지고 통역을 하면서 사용한 노트테이킹 용지에서의 횡선의 위치를 비교해보았다.

<그림2> 노트테이킹에서 황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ST에 표시한 것

It is a great honour for me to address a summit that holds so much promise for the many millions of people affected by dementia.//////

As you are well aware, dementia is a costly and heart-breaking epidemic with an immense impact, medically, psychologically, emotionally, and financially.//////

I can think of no other condition that has such a profound effect on loss of function, loss of independence, and the need for care.////// I can think of no other condition that places such a heavy burden on society, families, communities, and economies.////// I can think of no other condition where innovation, including breakthrough discoveries, is so badly needed.//////

On current estimates, dementia affects more than 35 million people worldwide.////// This number is expected to almost double every 20 years// as populations undergo rapid and nearly universal ageing.////// The annual costs of dementia, estimated at US\$ 604 billion, are growing even faster than its prevalence.//////

위의 <그림2>는 일곱 명의 통역대학원생들이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 중 동일한 ST를 가지고 순차통역을 하면서 사용한 노트테이킹 용지에서 황선을 그은 부분을 확인하여 ST에 빗금(/)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한 위치에 황선을 그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역을 하면서 동일한 위치에서 의미 덩어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해당 통역의 음성파일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이 의미 덩어리를 분절하는 위치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 즉 의미 단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통역학에서는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78)의 ‘센스’개념을 필두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의미 단위를 언급하고 있다(Albl-Mikasa, 2008: Goldman-Eisler, 1972 등). 그러나 대부분 ‘아이디어’ 또는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통역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의 분절을 설명하고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채점자간의 신뢰도 확보가 용이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²⁾.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의미 단

2) 본 연구자가 확인한 선행연구 중 통역에서의 의미단위 기준을 제시한 예로 알블 미카사(Albl-Mikasa 2008)는 통역의 의미단위로 ‘센스(sense)’를 언급하면서 ‘주어+목적어+동사’로 구성된 단위를 제안했으며, 골드만 아이슬러(Oldman-Eisler (1971)는 ‘EVS단위’를 통해 분석한 분절단위로서 부사+명사구, 명사구+동사구, 절 등을 언급

위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혹은 인근 학문 분야에서 유사한 개념을 차용하여 통역 평가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했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지금까지 ‘제2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언어 학습이나 평가가 개별 어휘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의미 덩어리 또는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예: Crookes, 1990; Wingfield & Karen, 1980; 광동기, 1999; 김서형, 2008; 김영희 외, 2011).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크룩스(Crookes 1990)가 인용한 크롤(Kroll 1977)의 ‘아이디어 단위(idea unit)’에 주목했다. 구어 형태의 독백문(oral monologue) 코퍼스를 분석하여 제안한 아이디어 단위는 ‘청자의 머릿속에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정보 덩어리로서 일정한 표면적 형태로 구현되는 의미 단위’로 규정되어, 통역학에서 ‘센스’, ‘메시지’, ‘아이디어’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의미 단위와 그 의미와 기능이 맞닿아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의미 단위가 어떤 표면적 형태로 표상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계량화가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크롤이 주창한 ‘아이디어 단위를 표상하는 표면적 형태’는 다음 <표1>과 같다(Crookes, 1990: 184-85).

<표1> Kroll이 제안한 아이디어 단위 개념

- | |
|--|
| <p>가. 아이디어 단위(idea unit)는 기본적으로 주어 + 동사 + (목적어/전치사구/부사구)로 구성된다.</p> <p>나.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관계절은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p> <p>다. 문장 앞머리 부분에 놓이면서, 본 문장과 쉼표(comma)로 연결된 절은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p> <p>라. 동사가 동사(구, to 부정사 포함)를 목적어로 받는 경우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p> <p>마. 종속접속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은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p> <p>바. 명사 뒤에서 명사의 한정어로 기능하는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p> <p>사. 그밖에 동격, 준동사 등도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p> |
|--|

했으나 정확도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간 상호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했다.

3. 크롤이 제시한 아이디어 단위의 수정과 보완

통역 정확도 평가를 위한 아이디어 단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크롤의 아이디어 단위가 실제 통역에서 사용되는 원천 텍스트 분절에 적용가능한지, 수정 보완 할 점은 없는지를 확인해야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우선 본 연구자가 크롤이 제시한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실제 연설문들을 분절하면서, 애매하거나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할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확인했다. 크롤의 아이디어 단위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점으로 다음 사항들이 있었다.

첫째, 크롤이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어 원문 텍스트에서 자주 보여지고 아이디어 단위를 나눌 때 유의해야하는 것이 바로 나열이다. 나열의 경우에는 단순한 어휘 나열도 있을 수 있고, 구, 절의 나열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어휘의 나열이거나 혹은 나열 항목 들 사이에 의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나열 항목 들 간에 의미적 독립성이 있어 개별적인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나열의 경우 아이디어 단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둘째, 크롤의 개념에 간략하게 언급된 ‘준동사’에 포함되는 to부정사는 자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그밖에도 수식어구라든가, that으로 이어진 종속절, 두 개의 문장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 의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실제 연설문을 여러 개 나누어 보면서 일차적으로 결정한 아이디어 단위의 개념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1차 수정 보완한 아이디어 단위 개념

- | |
|---|
| <p>(1) ‘아이디어 단위’라 함은 ‘화자 혹은 청자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이미지) 단위로 인지하여 처리하는 정보덩이’로 규정하며, 주부 + 술부 + (목적어, 전치사구, 부사구)로 구성된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아이디어 단위라는 것이 문법적 형태의 단위라기보다는 의미에 기반한 단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부 또는 술어가 생략이 된 경우라도 의미적으로 주부와 술부가 명확하며 독립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의미적 독립성’을 가진 아이디어 단위</p> |
|---|

로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사가 두 개 있는 경우에도 두 동사의 의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항으로서,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 해도 독립적 의미가 없는 문장(예: 'He said,... As you are well aware,.. 등)은 뒷부분의 문장과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 (2) 관계 대명사가 포함된 관계절은 하나의 의미단위로 산정한다. 단, 관계대명사 앞의 주절이 의미상 독립성이 적고 관계절과 긴밀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그러나 that으로 이어진 절이라도 본 문장에 종속되어 의미의 독립성이 적은 경우 본 문장과 한 아이디어 단위로 묶는다.
- (3)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의미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의미 단위로 산정한다.
- (4) to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본동사와 함께 처리하지만, 의미적 독립성이 강한 경우 별도의 의미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 (5) 동격이나 나열의 경우 의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하거나 두 개 이상의 나열 항목을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묶을 수 있다.
- (6) 삽입구나 삽입절은 의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세 명의 회의통역사를 섭외하여 일차적으로 규정된 아이디어 단위를 가지고 실제 연설문을 분절해보는 작업을 했다. 통역 교육 경험이 없는 회의통역사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단위를 나누어보도록 한 이유는, 평가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전 경험이 없이 제시된 아이디어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통역사에게 <표2>의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설명한 후 2,000단어 안팎의 연설문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 단위 분절화 작업을 하면서 분절화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한 분절이 끝난 후에는 아이디어 단위 개념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전체 과정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다음 <표3>은 논의과정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들의 예이다.

<표3> 아이디어 단위에 의거하여 텍스트를 분절하는데 대한 의견 예

1.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전치사구를 독립된 의미로 나눌지 아니면 주절과 함께 하나의 의미로 간주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e.g. With a growing number of foreign visitors in Korea, Ap-gu-jeo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famous tourist attractions.)

2. 목적어 역할을 하는 that절(S1+V1+that S2+V2)을 언제나 주절과 한 의미단위로 묶어야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좀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3. 삽입구가 짧고 간결하다면 설사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문장과 함쳐 하나의 의미로 산정해야할지 애매한 것 같다 (Norfolk, one of our Class 1 rail companies, ...).
4. 아직도 나열이 있는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열 항목들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채점해야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 같다.
5. When ~, If ~ 등의 가정법이 내용 자체가 길다면, 이를 개별적인 의미단위로 보아야하는지가 애매했다.
6. 동사가 두 개 있거나 같은 동사라도 다른 시제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을 때(예: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를 두 개로 나누어야하는지 궁금했다 등.

최종 단계로, 본 연구자가 통역사들이 의미단위를 분절하여 표시한 원고와 토론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고려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확정했다.

<표4> 최종 '아이디어 단위' 개념 규정

(1) '아이디어 단위(idea units)'라 함은 "화자 혹은 청자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하나의 '응집된 표상' 즉 하나의 '관념(idea)'이나 '개념(thought)' 또는 '실리적 영상(images)'(박종갑, 2006: 44)으로 인지하여 처리하는 정보덩이"로 규정한다. 형태는 통상적으로 주부 + 술부 + (목적어, 전치사구, 부사구)로 구성된다. 단, 여기서 아이디어 단위는 문법적 형태의 단위가 아닌 의미에 기반한 단위이다. 따라서 주부 혹은 술부가 생략된 경우라도 의미적으로 주부, 술부가 명확하며, 자체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의미적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예1) OHCHR coope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EU) is geographically and substantively wide-ranging.// The EU has been a champion of effor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globally.// (두 개의 아이디어 단위로 구성됨)

예2) Colonial Australia began as a tiny, exposed settlement on the edge of an unexplored continent.// at least one not explored by Europeans.// (밑줄 친 부분은 술부가 생략되어 있으나 맥락 상 주부와 술부가 명확하고 의미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예3) (1)One of the things that I did, (2)I was so consumed by these questions and also frustrated by those stories.// that I left my job so that I could study this full time.// and I took a year to travel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learn about effective and ineffective leadership practices in companies, countr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위에서 (1)문장은 주부와 술부가 갖추어져있으나 의미적으로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2)문장은 동사가 두 개 있지만 두 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예4) You may be asking yourself, is my company helping me to prepare to be a great 21st-century leader?// (밑줄 친 부분은 주부와 술부가 갖추어져 있지만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뒷부분과의 연계성이 크므로 뒷부분과 연결해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2) 관계 대명사가 포함된 관계절은 하나의 의미단위로 산정한다.

예1) The EU has been a champion of effor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globally // and has supported our many death penalty events in New York, // which focus on deepening knowledge of the injustices of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 (which가 이끄는 관계절은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를 구성한다)

단, 관계대명사 앞의 주절이 의미상 독립성이 적고 관계절과 긴밀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주절과 관계절을 합쳐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하며, 마찬가지로 관계절이 의미적 독립성이 적고 주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쳐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예2) This event included one speaker, Damien Echols, who spent 18 years on death row here in the United States // before being exonerated because he was innocent. // (who가 이끄는 관계절은 앞의 주문장과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예3) The first event held in NY in 2012, and opened by the Secretary-General// sought to draw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Member States that have taken ac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that이 이끄는 관계절은 앞 문장과 의미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를 구성한다)

(3) 분사(현재분사, 과거분사 모두 포함) 혹은 분사구문은 의미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의미 단위로 산정한다.

예1) The second NY-based event held this past June, and again opened by the Secretary-General, // focused on the failure of the judicial system to remedy wrongful convictions in death penalty cases.// This event included one speaker, Damien Echols, who spent 18 years on death row here in the United States // before being exonerated because he was innocent. //

예2) And through the Care Bill, currently going through Parliament,// exten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beyond 18 where this makes sense, rather than using the blunt instrument of a birthday to determine need.//

그러나 의미적 독립성이 없어 단일 수식어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사(혹은 분사 구문)는 본 문장과 함께 묶는다.

예3) In the EU and the US, the majority of the rules breathing life into the G20 principles have already been scripted and delivered.//

(4) to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본 문장과 함께 처리한다.

예1) But perhaps the most vital change in all of this is the new duty on health (1)to provide the health aspect of these new plans //

단, to부정사가 의미의 독립성이 강한 경우 별도의 의미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예2) As this promising trend continues to gather force, // let me point out that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zations have deep knowledge, unique insights and strong local networks // to generate meaningful debate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eath penalty. // (밑줄 친 부분은 ‘사형선고의 효과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라는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5) 나열의 경우 의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나열 항목 전체를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개별 항목을 하나씩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으며, 나열 항목 몇 개씩을 각각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묶을 수도 있다. 나열 항목 여러개를 하나의 의미단위로 묶는 경우 통역 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생략되었을 때 의미의 경중에 따라 1/2점, 또는 1/3점으로 계산한다.

예1) At intergovernmental level, you will recall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decided to convene, at its 25th session early next year, // a high-level panel discussion on the death penalty with the aim of exchanging views on advances, best practices and // challenges relating to it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밑줄 친 부분은 나열 항목 중 하나이지만 의미적 독립성이 있어 별도의 의미단위로 산정했다)

예2) Let us preserve this momentum away from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and towards its full abolition // (여기서는 나열 항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묶을 수 있다.)

예3) This event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leadership to shape the debate, // and the need for support from a broad coalition of victims’ families, communities, law enforcement officials, political leaders and faith lead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rights organizations to end the death penalty. // (여기서는 나열 항목들이 의미적 독립성이 적어 전체를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로 묶되 이중 일부를 놓친 경우 1/2점, 혹은 1/3점으로 처리한다)

(6) 삽입구나 삽입절은 의미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예1) Henry Parkes, the father of Australian federation, // talked about the countless millions who are within easy sail of these shores. // (밑줄 친 부분은 ‘Henry Parkes는 호주연방을 설립했다’라는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의미단위로 간주한다)

예2) I hope you are feeling more confident about what these changes - the biggest for 30 years - // mean for the health service. // (밑줄 친 삽입구는 독립된 의미가 있으므로 별도의 의미단위로 산정한다)

(7) 문장 앞부분 혹은 중간 부분에 삽입으로 연결된 전치사구 등은 의미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아이디어 단위로 산정한다.

예1) Despite corporate training programs, off-sites, assessments, coaching, all of these things, // more than half the companies had failed to grow enough great leaders. // (밑줄 친 부분은 주부, 술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전치사구이지만 의미적으로 ‘기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아이디어로 산정

한다.)

예2) So it is quite striking that even in Member States with multiple layers of judicial oversight/// persons wrongfully convicted and sentenced to death row, wait for years, even decades, to have the egregious error reversed./// (밑줄 친 부분은 문법적으로는 독립되지 않은 전치사구이지만 ‘사법감독 체제가 잘 갖추어져있다’는 독립된 의미를 가지므로 별도의 의미단위로 산정한다)

- (8)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하나의 아이디어 단위를 1로 하고, 그 중 일부의 내용을 놓치거나 왜곡한 경우 그 경중도에 따라 1/2, 또는 1/3로 산정한다. 최종 점수는 [(전체아이디어수-놓친 아이디어수)/전체 아이디어수]=정확도(%)로 계산한다.

<표4>와 같이 최종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확정했으므로,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아이디어 단위가 실제 평가에서 평가자간 신뢰도를 보이는지, 또한 실제 평가자들이 이를 쉽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현재 통번역대학원에서 통역 강의를 하고 있는 통역 교육자 3인을 섭외하여, 우선, 학생들 통역 파일을 전달하여 정확도를 평가해주도록 요청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만나 <표4>의 아이디어 단위를 교육하고, 교육 후 동일한 통역 파일의 정확도를 아이디어 단위에 기반하여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가가 완료된 후 교육 전과 교육 후 평가자간 상호신뢰도 지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했고, 아이디어 단위에 의한 정확도 평가에 관하여 각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개진해주도록 요청했다.

4. 평가자간 상호 신뢰도 평가

4.1. 평가 파일 준비

평가자간 상호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파일로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통번역학과 석사과정 졸업시험 중 영한순차통역 파일 일부를 사용했다. 해당 과목 시험은 시험 20분 전에 주제와 핵심단어를 고지하여 통역 준비를 하도록 한 후, 학생 1인이 전면에 배치한 좌석에 착석하고 2인의 면접관 앞에서 통역하도록 하고 있다. 영한 순차 통역의 경우 원천 텍스트는 영어 모국어 화자가

함께 참관해 가장 통역하기 편안한 속도로 보고되고 있는(Setton, 1999) 100~110 wpm 정도의 속도로 미리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도록 하며, 응시하는 학생들은 최고의 통역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 분석에 좋은 자료로 판단되었다. 통역 내용은 MP3로 녹음하여 그 음성파일을 추후 상세평가에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13년 12월에 시행한 졸업시험 파일 16개 중 파일 5개를 임의 선정했다. 해당년도의 원천텍스트로는, 2013년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 방역연맹 총회 및 전시회(The Federation of Asian and Oceania Pest Managers' Association)’에서의 FAOPA 회장, 데이비드 게이(David Gay) 축사 텍스트를 667단어 길이로 편집하여 사용했다. 해당 졸업생들에게는 따로 이메일을 보내어 영한순차통역 시험 평가에 있어 평가자 상호 신뢰도 분석에 본인의 통역 파일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과 모든 자료의 처리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고지했으며, 모든 졸업생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답메일로 보내왔다.

4.2 평가자 선정과 평가 절차

평가자는 총 3인을 선정했으며, 위 3장에서 서술한 아이디어 단위 수정 보완 과정에 참가한 통역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가 평가자는 국내 통역 대학원에서 통역을 강의하고 있는 전문통역사들로서 통역 교육 경력은 평균 5년(각각 4년, 6년, 5년)이었다. 각 평가자에 대해서는 우선, 임의 선정한 다섯 개의 통역 파일을 전달한 후,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원천텍스트의 내용 측면에서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해당 학생은 원천텍스트의 전체 내용 중 __%를 정확히 전달했음’의 공란에 들어갈 수치를 결정해줄 것과, 각자가 적용한 정확도 평가 기준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차 평가가 끝나고 결과를 취합한 후, 본 연구자와 세 평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 단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절차는 우선, 평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고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한 항목씩 짚어가면서 설명한 후, 본 연구를 위한 졸업시험에서의 원천 텍스트가 아닌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각자 이해한대로 아이디어 단위를 나누어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전체 교육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교육

후, 평가자들에게 교육받은 아이디어 단위 개념에 의거하여 1차 평가 때와 동일한 통역 파일을 다시 평가해줄 것과, 평가 후 아이디어 단위 적용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명시해줄 것을 부탁했다.

5. 결과

5.1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평가결과 통계 분석

다음 표는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집계한 정확도 평가 결과이다.

〈표5〉 채점자별 학생 정확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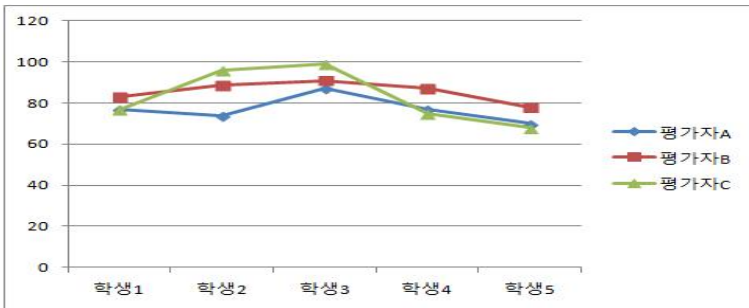
	교육 전			교육 후		
	평가자A	평가자B	평가자C	평가자A	평가자B	평가자C
학생1	77	83	77	90	86	75
학생2	74	88.5	96	88	90.5	86
학생3	87	91	99	95	92	97
학생4	77	87	75	86	89.5	79
학생5	70	78	68	76	82.5	68
평균	77	85.5	83	87	88.1	81

위의 표에서 교육 전 점수를 보면 평가자A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고, 평가자B는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평가자C는 다른 평가자에 비해 비교적 학생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전 정확도 평가에 대한 응답 내용에 따르면, 평가자A는 ‘정확도를 볼 때에는 주로 문장 차원에서 원천텍스트를 나누어 평가한다. 또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한두 문장으로 쪼개어 평가하기도 한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비교적 분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평가자B는 교육 전 사용했던 정확도 평가 기준에 관해 ‘문장 차원에서도 내용 일치를 보며, 단어, 어구 등에서도 내용 일치, 누락, 추가’ 등을 파악하여 결정한다’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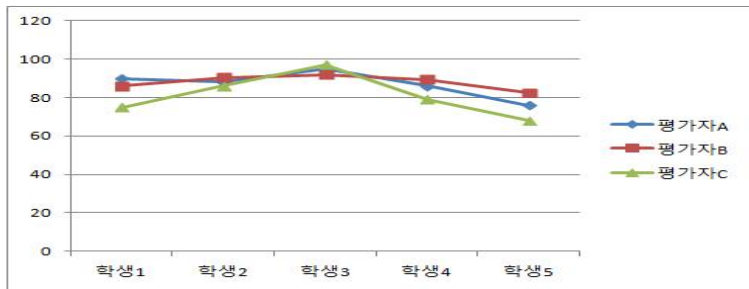
해 좀 더 작은 단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자 C의 경우는 ‘detail과 fact의 나열 등 미시적인 contents를 중심으로 보며,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즉 접속사, 연결어 등이 ST의 논리전개와 다를 경우 체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어 정확도 평가 단위가 평가자 중 가장 미시적인 요소들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요소 간에 가중치가 달라 학생 간 점수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교육 전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평가자 마다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전반적인 점수 분포에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점수 분포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해보았다.

〈그림3〉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평가점수 비교 그래프

(교육 전)



(교육 후)



언뜻 보아도 평가자 간의 거리가 교육 후 2차 평가에서 많이 좁혀져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보이는 이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를 이용, 측정치가 정량적일 때 사용하는 신뢰도 계수인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정하여 평가자간 상호신뢰도 지수를 검증했다. 결과는 다음 <표6>와 같다.

<표6> 교육 전과 교육 후 정확도 평가 점수에 대한 급내상관계수(ICC) 비교

(교육 전 급내상관계수)

	ICC	95% 신뢰구간		실제값 0으로 F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단일측도	.560	-.015	.934	4.822	4	8	.028
평균측도	.793	-.048	.977	4.822	4	8	.028

(교육 후 급내상관계수)

	ICC	95% 신뢰구간		실제값 0으로 F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단일측도	.677	.129	.956	7.301	4	8	.009
평균측도	.863	.308	.985	7.301	4	8	.009

여기서 단일측도라 함은 평가자 중 한명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한명의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며, 평균측도라 함은 평가자들의 점수를 평균낸 경우 그 평균값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한다. 신뢰도 판정은 신뢰도 분류에 널리 사용되는(한수연, 2010) 랜디스 & 코치(Landis & Koch 1977)의 신뢰도 계수 분류를 적용했다. 다음은 랜디스 & 코치가 제안하는 신뢰도 계수 분류표이다.

<표7> 랜디스 & 코치가 제안한 신뢰도계수 분류(1977)

값	신뢰도의 정도
< 0.00	Poor
0.00-0.20	Slight
0.21-0.40	Fair
0.41-0.60	Moderate
0.61-0.80	Substantial
0.81-1.00	Almost perfect

랜디스 & 코치의 분류표에 따라 표6에서 산출된 신뢰도를 판정하자면, 단일측도는 교육 전 ‘중간 정도의 신뢰도(moderate reliability)’인 .560에서 교육 후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substantial reliability)’인 .677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평균 측도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substantial reliability)’ 범주인 .793에서 교육 후 ‘거의 완벽한 수준의 신뢰도(Almost perfect reliability)’인 .863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따라서 정확도의 평가에 있어서 채점자간 신뢰도는 아이디어 단위에 관한 교육 이후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정확도 평가에 있어 학생 간 성적 순위에 있어서 평가자 간 신뢰도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 <표8>은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학생 간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8>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학생 간 순위 변화

	교육 전 순위			교육 후 순위		
	평가자A	평가자B	평가자C	평가자A	평가자B	평가자C
학생1	2	4	3	2	2	4
학생2	4	2	2	3	3	2
학생3	1	1	1	1	1	1
학생4	2	3	4	4	4	3
학생5	5	5	5	5	5	5

다음 <표9>는 학생별 순위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가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한 것이다.

〈표9〉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학생 순위에 대한 급내상관계수(ICC) 비교

(교육 전 급내상관계수)

	ICC	95% 신뢰구간		실제값 0으로 F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단일측도	.682	.136	.956	7.429	4	8	.008
평균측도	.865	.320	.985	7.429	4	8	.008

(교육 후 급내상관계수)

	ICC	95% 신뢰구간		실제값 0으로 F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단일측도	.800	.344	.975	13.000	4	8	.001
평균측도	.923	.611	.991	13.000	4	8	.001

평가자간 상호신뢰도 지수는 <표6>에서의 절대 점수와 마찬가지로 순위에서도 교육 후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일 측도는 교육 전과 교육 후가 모두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범주에 속해 있으나, 숫자를 보면 .682에서 .800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평균 측도 역시 둘 다 ‘거의 완벽한’ 신뢰도 범주에 속하지만 숫자를 비교해보면 .865에서 .923으로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년간 통역을 강의했던 평가자들 사이에 학생 순위는 교육 전에도 비교적 높은 정도의 신뢰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교육 후 훨씬 더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신뢰도 증가는 특히 평가를 받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2 아이디어 단위의 적용에 대한 평가자들 의견

2차 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 3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이디어 단위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 [표10]은 교육 전 평가에서 평가자들이 사용했다고 응답했던 정확도 사용 기준과 아이디어 단위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10〉 각 평가자의 교육 전 정확도 평가 기준과 아이디어 단위에 대한 의견

평가자	교육 전 정확도 평가 기준	아이디어 단위에 대한 의견
A	문장 위주로 덩어리를 나눴음. 이때 짧은 문장은 그대로 두고 긴 문장은 다시 한 번 더 나눈 후에 통역사가 언급하지 않거나 확실히 틀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전체문장 수 대비 맞게 통역한 문장 수의 비율로 계산했음	“원래 문장 단위로 나누어 평가를 하는 편이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문장도 길이 차이가 있어 결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미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나누니 좀 더 일관되고 고른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 등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이다.”
B	우선 문장 level의 내용 일치 여부를 먼저 평가했음. 그리고 난 후 구 단위와 단어 단위에서도 내용 일치와 누락, 또는 추가 등을 감안하여 정도에 따라 감점을 달리하여 평가했음.	“1차 평가 때는 좀 더 세세한 사항, 예를 들어 단어 차원에서 감점을 하거나 부정확한 단어, 어구가 주제와의 연관성에 따라 갖는 중요도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을 감안해가면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다. 이번에 아이디어 단위라는 개념을 배운 후에 의미 단위로 구분해서 평가하니,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느낌이 들고, 또 원천텍스트를 먼저 의미단위로 한꺼번에 나누어 놓은 후 채점을 하니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C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detail과 fact의 나열 등 미시적인 content를 중심으로 보았고, 추가로 detail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장으로 엮을 때 연사의 의도와 다르게 풀어간 메시지에 보다 거시적인 구조 파악이 덜 된 경우도 잘못된 것으로 처리하였음. 즉, 내용은 물론 그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 연사의 의도와 차이가 나는 구간도 확인하였음. 예를 들어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즉 접속사, 연결어 등이 ST의 논리적 흐름과 다를 경우 체크하였고, 또한 ST의 논리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시한 방식 등도 정확도 오류로 처리하였음.	“원래 통역의 정확도 평가를 할 때에는 원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된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디테일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보았다. 또한 이에 덧붙여 거시적인 구조 파악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논리적 전개를 나타내는 연결고리인 접속사 등이 ST의 논리적 흐름과 다른 경우 이를 체크하여 감점 처리하는 등 미시구조와 거시구조 모두를 디테일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편이었는데, 의미 단위에 대한 기준이 생기니 앞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동시통역을 가르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의 <표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 단위에 관한 교육을 받기 전 평가자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의미단위를 나누기보다는 문법적 형태인 문장 기준으로 평가 단위를 나누거나, 어휘 등 미시적인 요소들과 논리 구조 등 거시적 구조를 불규칙적으로 혼합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여러 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해왔던 교육자인 평가자들이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왔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교육 전에도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신뢰도 지수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모두 제각각이고, 기준들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일관성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아이디어 단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평가자간 신뢰도 지수가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아이디어 단위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평가자간 신뢰도 지수는 평가 대상의 수가 증가하면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 단위 적용에 대한 평가자들의 의견 역시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평이었다.

6. 결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통역 학생들의 형성 평가나 총괄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원문에 대한 충실도 또는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의미 단위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역 평가 기준이 표면적 형태보다는 의미 구성단위에 의거해야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통역 과정이 기본적으로 의미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Albl-Mikasa, 2008; Fabbro, Gran & Gran, 1991; Gile, 1997, Pochhacker & Shlesinger, 2002에서 재인용; Le Ny, 1978; Lederer, 1994; Moser-Mercer, 1997, Pochhacker & Shlistinger, 2002에서 재인용; Seleskovitch, 1978 등).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의미 단위에 대한 연구는 통역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이다(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위의 ‘2. 정보처리에 있어서 의미단위에 대한 선행연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단위에 따라 원천텍스트를 분절하여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통역사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통역 과정에서의 정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 단위가 되는 의미 덩어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EVS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Albl-Mikasa, 2008), 발화 사이의 휴지(pause) 길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Lee, 1999), 노트테이킹에서 문장 분절 양태(Albl-Mikasa, 2008)를 보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단위 개념은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언어 학습 분야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개별 단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미 덩어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중, 제2언어의 담화 분석을 위하여 제안된 크롤(1977, Crookes, 1990에서 재인용)의 아이디어 단위를 차용했다. 크롤의 아이디어 단위는 구어체 코퍼스를 분석하여 구성한 개념이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되고 처리되는 정보 덩어리의 기본 단위로서 몇가지 표면적 형태로 구현된다”(Crookes, 1990: 184)는 개념이 통역에서의 의미 덩어리 개념과 맞아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롤의 아이디어 단위는 제2언어 학습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념이었으므로 이를 통역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수정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아이디어 단위의 개념을 실제 통역을 강의하는 통역 강사들에게 교육 하고, 정확도 평가에 있어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평가자 신뢰도지수를 비교했다. SPSS를 이용하여 ICC를 산정한 결과 아이디어 단위에 대한 교육 결과는 절대 점수, 그리고 학생 간 순위 모두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연구에 참가한 평가자 들 의견 역시 정해진 아이디어 단위 개념에 따라 원천텍스트를 분절하고 내용에 근거하여 정확도를 평가하니 훨씬 더 일관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해 앞으로 통역 교육이나 평가에 있어서 아이디어 단위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의미 처리에 관한 연구 결과나 이론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이디어 단위의 분절이 “의미의 독립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단위의

개념에 대한 서술이나, 가이드라인, 예문 등을 보다 상세히, 정밀하게 서술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역평가자 수가 3인이고 평가의 대상이 5인으로서 다소 적은 느낌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통역 과일 수를 좀 더 늘리고, 평가자의 수도 늘리는 등 보다 확대된 연구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통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단위 개념을 검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한 통역과 한영 통역에 있어서 아이디어 단위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노트 테이킹을 가지고 실시하는 순차통역과 노트 테이킹 없이 전향적으로 문장을 풀어나가야 하는 동시통역의 경우 정확도 평가에 있어 아이디어 단위의 유의미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디어 단위에 관한 본 연구가 정보처리에 있어서 의미 단위에 관한 향후 연구들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통역 교육자들의 학생 평가에 있어 하나의 유효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남희 (2009) 「순차통역에서 노트테이킹과 조정노력 기능의 역할」, 『통번역학 연구』 12(2): 51-78.
- 곽동기 (1999) 「의미단위에 의한 읽기 지도방안」, 『교육과학연구』 4: 187-97.
- 김서형 (2008) 「의미단위 지도를 통한 한국어 읽기 능력 신장방안」, 『이중언어학』 38: 69-93.
- 김영희, 강문구, 윤선중 (2011) 「의미단위로 끊어 듣기 활동을 통한 영어 듣기 능력 향상방안」, 『영어교과교육』 10(2): 63-83.
- 원종화 (2013) 「통역교육에 있어서 정보처리 이론의 유효성」. 2013 번역학 겨울학교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 이상빈 (2012) 『국제회의 통역사를 위한 노트테이킹 핵심기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유아 (2006) 「한일순차통역 교육에 있어서 노트테이킹 지도방안 고찰」, 『일어일문학』 29: 53-65.

- 정혜연&고효정 (2012) 「‘메시지’ 측정: 텍스트 및 인지언어학적 접근」, 『번역학 연구』, 13(4): 185-209.
- 최정화 (2002) 『노트테이킹』, 서울: 한국문화사.
- 한수연 (2010) 『신뢰도 연구에서 급내상관계수와 관련한 표본 수 결정 방법 비교』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Albl-Mikasa, Michaela (2008). '(Non-)Sense in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ing* 10(2): 197-231.
- Brown, H. Douglas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NY: Longman.
- Buhler, Hildegund (1986). 'Linguistic(semantic) and extralinguistic (pragmatic)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interpreters', *Multilingua* 5(4): 231-35.
- Chiaro, Delia & Nocella, Giuseppe (2004). 'Interpreters' perception of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factors affecting quality: A survey through the world wide web', *Meta* 49(2): 278-93.
- Crookes, Graham (1990). 'The utterance, and other basic units for second language discourse analysis', *Applied Linguistics* 11(2): 183-99.
- Fabbro, Franco, Gran, Bruno., & Grans, Luis (1991). 'Hemispheric specialization for semantic and syntactic components of language in simultaneous interpreters', *Brain and Language* 41: 1-42.
- Federich, M. Federico (2010). Assessing translation skills: Reflective practice on linguistic and cultural awareness. In V. Pellat, K. Griffiths, & S. Wu.(Eds.) *Teaching and Testing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NY: Peter Lang, 171-92.
- Gile, Daniel (1995). 'Fidelity Assessment in Consecutive Interpretation: An Experiment', *Target* 7(1): 151-64.
- Gile, Daniel (1997) 'The effects of presentation rate', In Franz Pochhacker & Miriam Shlestinger (Eds., 2002),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 NY: Routledge, 53-66.
- Gillies, Andrew (2005) *Note-taking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 a short*

- cours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Goldman-Eisler, F. (1972). 'Segmentation of input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7: 127-40.
- Kurz, Ingrid (2001) 'Conference interpreting: Quality in the Ears of the User', *Meta* 46(2): 394-409.
- Landis, J. Richard, & Koch, G. Koch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 159-74.
- Le Ny, Jean-Francois (1978) 'Psychosemantics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D. Gerver & H. W.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NY: Plenum Press, 289-98.
- Lederer, Marianne. (1994) *Translation: The Interpretive Model*, UK: St. Jerome.
- Lee, Jeeun. (2008) 'Rating scales for interpreting performance assessment',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2(2): 165-84.
- Lee, Tae-Hyung. (1999) 'Speech proportion and accurac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English into Korean', *Meta* 44(2): 260-67.
- Moser, Peter. (1996) 'Expectations of users of conference interpretation', *Interpreting* 1(2): 145-78.
- Moser-Mercer, Barbara (1997) 'Process model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F. Pochhacker, & 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 NY: Routledge, 148-61.
- Pochhacker, Franz. (2001) 'Quality assessment in conference and community interpreting', *Meta* 46(2): 410-25.
- Riccardi, Alessandra. (2002) 'Evaluation in interpretation', In E. Hung(Ed),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4*,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5-26.
- Seleskovitch, Danica. (1978)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WA: Pen & Booth.
- Setton, Rrobin. (1999)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ognitive-pragmatic analysis*, Amsterdam: John Benjamins.

[Abstract]

**A study on idea units for evaluating the accuracy of
graduate students' interpretation**Won, Jong-Hwa
(Chung-Ang University)

The current paper aims to define 'idea units' as a means to measure the "accuracy" or "faithfulness to the ST" in students' interpretation. As has been stated by many interpreting researchers, interpreting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accumulated parcels of meaning through segmentation of the incoming text. With such segments, or chunks of information, interpreters comprehend, store and convey the messages from the source text effectively. In order to assess students' accuracy in interpre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egmentation units which are perceived and processed in the mind of the interpreter. To define such units, the current paper borrowed the concept of "idea units" first advanced by Kroll(1977)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ESL students' proficiency. The concept of idea units was adopted and modified by the current author to evaluate the accuracy of graduate students' interpretation. After finalizing the concept of idea units, the author asked three interpreting teachers, who have been teaching interpretation at graduate schools of interpretation for an average of 5 years, to evaluate 5 graduate students' consecutive interpretation. The investigation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icipating teachers evaluated the accuracy of the interpretation based on their own respective grading measures. Second, the author trained the teachers in the concepts of idea units. Finally, the teachers were asked to re-evaluate the same recorded interpretations, this time through the lens of idea units they had learned from the author. After thi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Inter-rater reliability was analyzed using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for the numbers they gave to each interpretation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rater reli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training. Concerning the values of idea units, the participating teachers observed they were able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students' interpretation more easily and objectively after the training. Thus, it can be concluded from the results that the idea units as suggested in this paper can be both a fair and effective measure to evaluate the accuracy of interpretation.

▶ Key Words: accuracy, consecutive interpretation, idea unit, inter-rater reliability,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원종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wonjh@cau.ac.kr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과정지향적 통번역연구, 인지과학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